

'국가예산 확보 방안 논의'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시-전북도 시정운영 방향 등 간담회

군산시가 오는 2023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시는 21일 전북도 및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민선 8기 운영방향 및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간담회에서 전북도는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동향 및 대응 방향과 전북도 중점사업 추진상황을 공유했으며, 시는 중점사업에 대한 전북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을 요청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시 중점사업으로는 △비응항 어항구 확장개발, △군산항 제2준설로 투기장 건설, △산업을

자유주행 스케이팅 플랫폼 및 운영기술 개발,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군산 어청도~연도 항로부터 여객운항 결승금 지원,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군산시탕상품권 발행 및 운영사업 등이며, 기재부 심의 및 국회연계에서의 각 사업별 쟁점과 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 전략도 논의했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각각사업의 증액을 위해서는 그 필요성과 논리가 필수적이므로 각각 논리에 대응할 논리 개발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중점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추진해온 사항을 서로 확인하고 보완하는 자리가 되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가 서울에서 개최된 내나라 여행 박람회에 참여해 홍보관 운영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마룡이, 관람객에 인기 폭발

익산시, '내나라 여행 박람회' 성황리 종료

익산시가 서울에서 개최된 내나라 여행 박람회에 참여해 홍보관 운영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시는 지난 16일부터 나흘 동안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린 박람회에 참여해 지역 관광지를 홍보했다.

시는 2022~2023 익산방문의 해를 맞아 주요 관광지과 대물림 맛집 등을 알리고 방문의 해 관광 홍보영상 상영, 시티투어 등을 안내했다. 이와 함께 관람객들과 백제 복식 체험, 홍보부스 인증샷 이벤트 등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익산을 알리고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홍보전략을 펼쳤다.

특히 관광 마스크트인 '마룡이'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선착순 100명에 마룡이 인형, 마룡이 키

링을 기념품으로 증정하는 SNS 이벤트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조기 마감됐다.

이번 박람회는 2004년부터 이어온 전국 지자체 참여 여행 전문 박람회로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공동 개최하였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침체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떠나라 #자유롭게 #내나라로!' 라는 주제로 더욱盛大하게 진행되었다.

시 관계자는 "내나라 여행 박람회를 통해 2022~2023 익산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관광 마스크트인 마룡이를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한 홍보 전략을 마련해 관광도시로서의 익산 홍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 수소차 인프라 '확대'... 2호 충전소 구축

익산지역에 두 번째 수소차 충전소가 들어선다.

앞으로도 시는 순차적으로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소차 보급을 확대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21일 한국가스기술공사, 에스케이플러그하이버스, 익산여객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수소버스충전소 설치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익산여객은 설치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가스기술공사는 해당 부지에 수소버스충전소를 구축, 에스케이플러그하이버스는 추후 충전소가 완공되면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충전소 설치와 관련한 행정절차를 지원한다.

수소충전소는 총 80억원(국비 42억원, 도·시비 각 9억원)이 투입돼 목천동 일원에 오는 2023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충전소는 하루 150대(버스)의 수소자동차가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이는 1일 50대 충전 가능한 1호 충전소에 비해 2배 이상 큰 규모이다.

충전소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수소차 운전자들의 충전 편의는 물론 친환경자동차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수소버스충전소가 신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 농촌이 살기 좋아진다

농식품부 농촌협약·농촌공간정비 사업... 750억 규모 공모 선정

익산시가 정부가 주관한 '농촌협약' 공모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공모 선정으로 대규모 국비가 투입되면서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는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포함해 75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농촌협약, 농촌공간 정비 사업 등으로 나뉘어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농촌협약 사업은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된다. 시가 사업계획을 검토·보완하고 농식품부가 최종 확정하면 오는 2023년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 체결 후 2023년부터 5년 동안 국비 최대 300억원을 포함해 사업비 430억원(지방비 130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농촌공간 정비 사업도 병행해 추진한다. 대상은 왕궁 학호마을, 잠잠마을, 합월, 황등 낭산폐석산 등 난개발 지역으로 국비 포함 320억원이 투입돼 정비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농촌공간 정비는 농촌협약에 선정된 시군이 우선적으로 지원됨에 따라 함께 지원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공모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공동목표로 하는 제도로, 시·군 주도 농촌 공간 전략과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받는 사업이다.

시는 농식품부의 중앙평가에서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와 가능성, 준비 정도 계획 정합성, 조직 구성 등 다방면에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읍·면 지역 주민들을 비롯하여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까지 더해져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정현을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지역 주민들도 언제 어디서든 교육, 의료, 복지 등 기초·복합 생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며 "협약이 완료되면 농촌지역의 전반적인 생활 서비스 수준과 시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코로나 백신 4차 접종률 전국 평균 보다 높아

익산지역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률이 2개월 만에 전국 평균보다 높은 46.9%를 돌파했다.

시는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해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추가 접종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

지난 20일 이 시 기준 코로나19 4차 접종을 실시한 익산시민은 3만 9,170명으로 접종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46.9%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33.5% 보다 13.4%나 높은 수치이다.

특히 위중증이나 사망 예방을 위해 고령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권고한 결과 60세 이상 접종 대상자 대비 4차 접종률은 47.6%에 달하고 있다.

세부 연령별로 보면 80대 이상이 64.1%로 가장 높았고 70대가 60.2%, 60대가 33.8%의 접종률을 각각 기록했으며, 대상자별로는 고위험군 중 면역저하자 41.2%, 요양병원·시설의 중사

자·입소자 63.9%, 정신건강증진시설 72.4%를 기록했다.

시는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은 감염 우려가 높고 감염 시 위중증 상황이나 사망 위험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추가 접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백신 4차접종 대상자는 60세 이상 고령층,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건강증진 시설 종사자·입소자 중 3차 접종 완료자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보건소, 패브릭 아트 배움교실 운영

군산시보건소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외부활동 감소로 심리적 위축된 30~50대 여성에게 힐링타임 패브릭아트 야생화그리기 배움 교실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센터는 서부권(소룡·미성동) 지역 중년 여성 15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이달 말까지(총 12회) 야생화 그리기 배움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감염증 장기화로 사회적 교류 감소 및 사회활동이 위축된 여성에게 패브릭 물감을 이용해 천에 야생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익혀 남편의 작품을 만들 기회를 제공해 친체된 일상에 활력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학교 자투리공간 명상숲 조성 완료

군산시는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친자연적 학습공간 제공을 위한 명상숲 조성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상숲 조성사업은 임피중학교, 군산명화학교, 해성초등학교, 옥봉초등학교 4개교에 총사업비 2억4,000만원(도비 1.2, 시비 1.2)이 투입됐다.

시는 설계과정부터 시공까지 학교교과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등굣길 등 다양한 수목과 초화류 및 편익시설을 설치했으며 교사, 학생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열린 휴식공간으로 조성했다.

특히 학생 및 교직원인 관목 및 초화류 식재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시와 학교가 함께 조성하는 명상숲을 완성했다.

심문태 산림복지과장은 "조성된 학교숲이 친자연적 교육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의 휴식 및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어 주변 정주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